

수도권 노렸던 유력 후보들 대거 호남행

■ 광주·전남 4·9총선 기상도

신당-민주 생존경쟁 치열할 듯 정치신인 몰려 혼전 양상 가능성

내년 4월 9일 치러지는 제18대 총선 출마를 희망하거나 준비 중에 있는 예비후보들이 속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출마 예상자의 경우 28일 현재까지 10.4대 1과 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데다, 각 당의 체제가 정비되고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는 내년 2월에는 입지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상태다.

이번 총선은 전국적으로 대통합민주신당(이하 신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이회창 신당' 등 다자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 정치신인들의 '입문'이 어느 선거보다 수월해지면서, 선거도 덩달아 혼전 양상을 띠는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광주·전남은 지난 대선에서 지역민들로부터 표표를 얻은 신당과, 전통적으로 호남을 텃밭으로 성장해온 민주당의 생존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 대선 때 수도권의 한나라당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수도권을 노렸던 신당과 민주당의 출마 예상자들이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큰 광주로 발길을 선회하면서 소위 '유력 후보'들 간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 광주·전남에는 신당 현역의원들이 전원 출마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신당 원내인사들과 민주당 전직 의원 및 핵심 당직자들이 대거 나서 '현역 돌발이론'을 앞장세워 승부를 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광주·전남지역 20개 선거구에는 지난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와 '깊은' 인연을 맺은 인사들이 대거 출사표를 제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여파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소위 '탄표원'의원들을 긴장시

키고 있다. 또 '물갈이론'과 '다자구도 선거'에 의지, 국회에 입성하려는 정치신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지역에서 병역이나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사회활동을 해 온 정치신인들의 이름도 눈에 띌 만큼 두드러졌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돌풍을 몰고 온 창조한국당의 경우 광주·전남 20개 선거구에 겨우 3~4명만이 이름을 올렸으며, 한나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광주·전남 지역구에 나서려는 출마 예상자는 10여 명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내년 총선에서 분구가 예상되는 광산구의 경우 14명이 출사표를 낸 상태로, 실제로 분구가 이뤄질 경우 이곳에 뜻을 둔 예비후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구 하

한선이 붓고, 선거구가 1개로 통폐합될 위기에 처한 서구의 경우, 갑과 을 선거구를 합치면 출마 예상자가 무려 17명에 달해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전남에서도 여수시가 인구감소의 여파로 선거구가 1개로 축소될 위기에 처하는 등 일부 선거구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마 예상자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다.

이번 총선에서는 또 과거와 달리 현역 단체장으로서 총선 출마에 뛰어든 인사는 전무했다. 이는 지방선거가 지난해 실시돼 임기가 채 1년도 지나지 않음으로써, '출마 욕구'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연임 제한에 걸린 단체장이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盧대통령-李당선자 첫 회동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당선자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만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정권 인수 문제를 비롯한 국정현안을 논의했다.

제18대 총선 광주·전남 출마 예상자	
신당 신·대통합민주신당, 한·한나라당, 노·민주노동당, 민·민주당, 국·국민중심당, 창·창조한국당, 무·무소속	정동영 ·62·신·서남권발전포럼 이사장 김대중 ·47·신·전·목포시의원 배중호 ·47·신·정당인 우승하 ·53·한·정당인 한화갑 ·68·민·전·민주당 대표
광주 동구 양형일·57·신·현 의원 김중배·54·신·전 의원 김정일·60·한·정당인 박주선·58·민·전 의원 김경현·66·민·전 의원 노인수·51·무·변호사 양희창·54·무·기업인	이수갑 김성근·56·신·현 의원 이명수·47·신·민주당부대변인 김용우·54·한·정당인 서천석·57·민·지역위원회 부위원장 김충호·65·민·전·국회의원 김충석·68·민·전·시장 정세석·47·무·교수
광주 서구 염동연·62·신·현 의원 이정일·61·신·전·서구청장 송갑석·43·신·정동영 청년 선대위원장 정용화·44·한·전·연세대 교수 김기수·56·노·광주시립 위원장 유종철·60·민·전·서구청장 조영택·57·무·전·국무조정실장 신원구·48·무·전·민주당 지역위원장	이수복 주승용·56·신·현 의원 김중보·60·신·전·김철총장 신정우·48·한·정당인 박병일·56·민·전·도의원 김인수·68·민·정당인 이명진·42·무·정치인 박명영·59·무·정치인
광주 서클 정동호·57·신·현 의원 김정진·60·신·전 의원 문신호·48·한·당 부대변인 이정현·48·한·당 부대변인 오광윤·47·노·전·시당위원장 김성현·47·민·광주시립 사무처장 정홍호·48·민·전·지공위원회 신원구·48·무·전·민주당 지역위원장	이수준 서강원·46·신·현 의원 정복심·61·신·국회의원 이명수·47·신·정동영후보 수행실장 이수근·40·노·전·남·도·당위원장 박동수·56·민·전·시의원 구희승·45·한·전·기사 김원근·38·무·정치인
광주 남구 지명희·54·신·현 의원 서갑성·59·신·조선태고수 김희갑·45·신·국무총리실 정무수석 정재호·51·신·통이병원장 정기남·43·신·정동영선대위 총괄조정실장 이윤정·48·신·정당인 임홍재·45·신·정당인 김영인·51·한·정당인 김인식·44·민·전 의원 김문태·60·무·전 의원 이종학·53·무·변호사 서정성·37·무·아이안과외장 경도석·54·무·전·광주시의원	이수하 배기운·56·신·전 의원 임성훈·48·신·기업인 정호진·64·신·전·국회의원 김정호·46·한·당 부대변인 전종욱·36·노·전·전남·도의원 최인기·64·민·현 의원
광주 북구 강기정·44·신·현 의원 송우영·44·신·대선후보 부대변인 임원호·52·신·광주교대 총장 조지선·53·신·변호사 장영남·53·신·기회예산처장관 이명연·58·신·전·청와대장무 비서관 이기연·60·한·정당인 이봉호·36·노·중앙당당직자 김종신·61·민·전·국무부차관 오영근·47·민·전·성청외과위원장 김재우·42·민·당 부대변인 김정진·44·전·변호사	이수재 유은근·49·신·현 의원 정철기·69·민·전 의원 박필승·46·무·전·도의원 김관영·69·무·무직 이승재·54·무·전·해양경찰청장
광주 북부 김태홍·65·신·현 의원 임시규·59·신·농림부차관 김재관·54·신·전·북구청장 임내현·56·신·전·광주교대교장 이형석·48·신·전·광주시의원 김용원·55·신·전·광주시의원 김광진·51·한·정당인 김현정·36·노·당직자 최정주·47·민·광주시립위원장 김정수·47·무·무등일보 회장	이수재 서강원·46·신·현 의원 정복심·61·신·국회의원 이명수·47·신·정동영후보 수행실장 이수근·40·노·전·남·도·당위원장 박동수·56·민·전·시의원 구희승·45·한·전·기사 김원근·38·무·정치인
광주 남부 김중배·54·신·전 의원 김정일·60·한·정당인 박주선·58·민·전 의원 김경현·66·민·전 의원 노인수·51·무·변호사 양희창·54·무·기업인	이수복 주승용·56·신·현 의원 김중보·60·신·전·김철총장 신정우·48·한·정당인 박병일·56·민·전·도의원 김인수·68·민·정당인 이명진·42·무·정치인 박명영·59·무·정치인
광주 서남 김기수·56·노·광주시립 위원장 유종철·60·민·전·서구청장 조영택·57·무·전·국무조정실장 신원구·48·무·전·민주당 지역위원장	이수준 서강원·46·신·현 의원 정복심·61·신·국회의원 이명수·47·신·정동영후보 수행실장 이수근·40·노·전·남·도·당위원장 박동수·56·민·전·시의원 구희승·45·한·전·기사 김원근·38·무·정치인
광주 서북 정동호·57·신·현 의원 김정진·60·신·전 의원 문신호·48·한·당 부대변인 이정현·48·한·당 부대변인 오광윤·47·노·전·시당위원장 김성현·47·민·광주시립 사무처장 정홍호·48·민·전·지공위원회 신원구·48·무·전·민주당 지역위원장	이수하 배기운·56·신·전 의원 임성훈·48·신·기업인 정호진·64·신·전·국회의원 김정호·46·한·당 부대변인 전종욱·36·노·전·전남·도의원 최인기·64·민·현 의원
광주 서남 김기정·44·신·현 의원 송우영·44·신·대선후보 부대변인 임원호·52·신·광주교대 총장 조지선·53·신·변호사 장영남·53·신·기회예산처장관 이명연·58·신·전·청와대장무 비서관 이기연·60·한·정당인 이봉호·36·노·중앙당당직자 김종신·61·민·전·국무부차관 오영근·47·민·전·성청외과위원장 김재우·42·민·당 부대변인 김정진·44·전·변호사	이수재 유은근·49·신·현 의원 정철기·69·민·전 의원 박필승·46·무·전·도의원 김관영·69·무·무직 이승재·54·무·전·해양경찰청장
광주 서남 김중배·54·신·전 의원 김정일·60·한·정당인 박주선·58·민·전 의원 김경현·66·민·전 의원 노인수·51·무·변호사 양희창·54·무·기업인	이수복 주승용·56·신·현 의원 김중보·60·신·전·김철총장 신정우·48·한·정당인 박병일·56·민·전·도의원 김인수·68·민·정당인 이명진·42·무·정치인 박명영·59·무·정치인
광주 서남 김기수·56·노·광주시립 위원장 유종철·60·민·전·서구청장 조영택·57·무·전·국무조정실장 신원구·48·무·전·민주당 지역위원장	이수준 서강원·46·신·현 의원 정복심·61·신·국회의원 이명수·47·신·정동영후보 수행실장 이수근·40·노·전·남·도·당위원장 박동수·56·민·전·시의원 구희승·45·한·전·기사 김원근·38·무·정치인

신당 쇠신 동상이몽

수도권 의원들 "재창당 수준 체제 정비 필요"
호남권 의원들 "대내 사냥식 인적 청산 안돼"

대통합민주신당이 대선 참패의 후폭풍속에서 활로 찾기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의원들과 호남권 의원들이 당 수습 방안에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의원들은 창조적 파괴를 통한 보다 근본적인 체제 정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호남권 의원들은 '질서있는 수습론'을 내세우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는 무엇보다도 내년 총선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수도권 의원들은 내년 총선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다는 점에서 소위 '실용 보수' 태풍을 우려하고 있다. 즉, 이때로 미지근하게 당 체제 정비가 가다가는 총선에서 대혁신을 당할 수 있다는 절박감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당의 해산에 준하는 '제2의 정풍운동'을 내세운 초재선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

가 수도권 출신이다.
이들은 총리, 장관, 당 의장, 원내대표 출신 등 '물갈이'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압박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창조적 파괴를 통해 노무현 색깔을 지우고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 시절에서 자유로운 순화 규 전 지사가 당의 '새 얼굴'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반해, 호남권 의원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함께 질서있는 체제 정비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천만 확보하면 18대 국회 진출이 어느정도 보장된다는 점이 은연중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당이 흔들리지 않아야 현역 기록권을 활용할 수 있어 내년 공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의원들이 2선 후퇴를 주장하는 당의 중진들과 참여정부 내각 참여인사에는 호남권 의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 반발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장 정동영 전 의장과 정세균, 정동채 의원 등이 참여정부 내각에 참여했으며 김원기 의원과 염동연 의원은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맡은 바 있다.
광주지역 모 의원은 "수도권 의원들의 생각에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마녀사냥 식으로 인적 청산에 나서는 것은 반대한다"며 "최소한 여당으로서의 자존심은 지키면서 체제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공천 지연 납득 못해" 박근혜, 낙당선자에 불만 표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8일 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제18대 총선 공천문제와 관련, "늦춰야 하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입장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당선자 측에서 대통령 취임과 맞물려 공천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인수위 업무도 중요하지만 공천도 당으로서의 중요한 것 아니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표가 공천 시기를 내년 2월 이후로 늦추는 당 주류측의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에 따라, 이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일각에서 거론되는 당권·대권 분리 문제와 관련해 "당헌 당규에 있는 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당선자와 회동과 관련해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곧 만나게 될 것 같다"면서 회동 의제와 관련해선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라며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제7회 경제정의 기암상 수상
ILDONG 일동제약

머리 아플 땐, 캐롤에프를 부르세요~

효과가 빠르다, 위장 부담이 적다 -
캐롤에프의 이부프로펜아르기닌 효과!

체내에 신속히 흡수되어 효과가 빠릅니다
흔수 촉진제인 아르기닌에 의해 이부프로펜의 위장근육수축 촉진력이 높습니다.

위장보호 작용으로 위장 부담이 적습니다
아르기닌이 위장벽을 강화시키고 위장의 손상을 줄여 위장 침해를 최소화시켜줍니다.

감기로 인한 두통 발열
매달 찾아오는 생리통
원인도 증상도 다양한 두통

www.ildong.com